

대학 진학률 하락, 지역간 양극화에 주목해야

2010.3.23 | 최민선_새사연 연구원 | humanelife@saesayon.org
이상동_새사연 연구센터장 | sdlee@saesayon.org

목 차

1. 문제제기
2. 대학진학률 현황
3. 대학진학률 장기 변화의 수요 공급 요인
 - 1) 공급 측 : 고교 졸업생 및 진로 경로의 변화
 - 2) 수요 측 : 대학 입학 정원의 변화
4. 결론
5. 토론 : 대학입시 정책 효과



<http://saesayon.org>

요약

‘대학진학률 19년 만에 처음 하락’

통계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지난해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이 전년보다 1.9%포인트 낮아지자 각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가 뒤따랐다. 어떤 이는 학벌사회에 균열이 생긴 징표라며 호들갑을 떨었고, 어떤 이는 대학 구조조정의 결과 대학 정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보도의 결론은 ‘전문가들도 진학률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졸업장으로 평생 소득이 좌우되는 학벌사회에서 대학진학률은 매우 민감한 소재다. 해마다 진학률은 전년도 기록을 갱신하며 상승세를 유지했고 이제는 10명 중 8명 이상이 대학에 가는 사회가 됐다. 한편으로는 대학 수도 늘어 입학정원이 몇 년 후면 고교 졸업생 수보다 많아지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경쟁은 치열하기만 하다. 하지만 이는 알고 보면 전문대나 지방대가 아닌 서울의 4년제 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이다.

대학진학률은 인문계와 전문계 고교 전체의 졸업생 숫자와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입학생 수의 비율이다. 따라서 지난해 진학률이 하락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인문계고와 전문계고 각각의 졸업생들의 대학진학률과, 일반대와 전문대, 산업대 등 대학별 입학자의 추이를 분석해야 한다.

또한 고교 졸업생이 아닌 재수생, 사회인 등의 대학 진학률 역시 중요한 변수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 수가 줄었다더라도 재수, 삼수를 각오하더라도 서울의 4년제 대학을 가려는 학생이 늘었다면 진학률 하락은 ‘사회적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이 글은 2009년의 대학진학률 하락을 세 가지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라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첫째,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대학의 선발 정원의 감소는 일반대가 아닌 전문대의 입학정원의 감소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대에 진학하려는 입시경쟁은 줄어들지 않았다.

둘째, 저출산 추세로 인해 고교 졸업생 규모가 줄어든 것은 2000년대 초반이었으며, 중반 이후에는 정체돼 있었으므로 2009년의 진학률 하락 이유가 될 수 없다. 게다가 졸업생 수가 감소하던 시기에도 대학진학자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셋째, 대입제도의 변화로 수능 영향력이 늘고 내신 비중이 감소한 것에 의해 재수

생이 늘고 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떨어졌다는 분석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추정이다. 대학진학률 변화는 한국사회의 학력 간 차별, 이로 인한 입시 경쟁의 격화 현상과의 관련성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오히려 재수생을 포함한 진학률 추이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난해 대학진학률 하락이라는 결과를 통해 주요하게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째, 이미 80%를 돌파한 대학진학률은 2003년 이후 포화기에 접어들었다. 특히 2003년 이후에는 이미 전문계 고교까지 진학률이 70%를 돌파해 추가적인 상승이 어렵다는 공급측 요인과 생존 조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의 정원 감소라는 수요측 요인까지 겹쳐 대학진학률이 정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장기 변화 추세에서 포괄적 지표인 대학진학률보다 대학 종류별 경쟁의 정도라는 질적인 지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지난해 진학률 하락은 전국적 현상이었지만 서울과 경기, 대전 등 대도시의 진학률 하락이 매우 두드러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대도시 지역일수록 임금노동자 비중이 높고 경기에 민감한 가구의 비중이 높아 이들 가구의 자녀들이 진학을 포기 또는 연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대도시 지역의 대학진학 경쟁률 격화다. 대다수가 대학을 갈 수 있는 조건에서 대학을 졸업해도 ‘백수’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취업되는 현실 때문에 대도시 지역의 이름있는 대학에 가려는 고교생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재수생이 양산되는 것도 그 이유다. 따라서 지난해 대학진학률 하락은 무엇보다 지역 간, 대학 간 양극화에 주목해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

1. 문제 제기

■ 2009년 대학진학률 크게 하락. 81.9%를 기록

- 1990년 이후 떨어진 적 없던 대학진학률이 2009년도에 지난해 1.9%p 하락함.
- 1990년과 1991년에 33.2%, 2005년과 2006년에 82.1%로 각각 전년 수준을 유지한 적은 있지만 2%p 가까이 하락한 것은 처음임.
- 이로 인해 고교졸업생 중 당해연도 대학 진학자가 전년인 2008년에 비해 약 1만 5천명 정도 줄어듦.

■ 대학진학률 하락을 ‘학력인플레이’로 인한 추세 변화의 신호로 해석하는 입장 등장

-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다른 국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음. 2009년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입학률은 세계 2위로, OECD 평균인 56%는 물론이고 인근 국가인 일본의 45%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음(2006년 기준, A유형 고등교육기관 입학률).

- 이 때문에 높은 진학률이 한국의 교육문제를 심각하게 만든다는 시각이 존재.
- 만약 2009년 진학률 하락이 지난 기간의 고학력화 추세가 반전되기 시작한 것이라면, 반전의 본질적 계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

■ 대학진학률은 장기적 관점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 보아야 함

- 이미 대학 진학이 전문계고 졸업생까지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은 ‘고학력 현상’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 지난해의 ‘반짝 현상’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우를 범할 수 있음.
- 대학진학률은 한국사회의 학력 간 불평등 구조의 반영이며 대학의 학생 선발과 대학교육 정책 그리고 고교졸업생의 집단적 행위 등이 결합된 효과라 할 수 있음.
- 이상의 구조적 요인은 1990년대 이후 장기화된 현상으로써 파악해야 함.

■ 이 글은 2009년의 대학진학률 하락을 세 가지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라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림

- 세 가지 측면은 ① 대학의 선발 정원 ② 고교 졸업생 규모 ③ 대입제도 효과를 말함
- 장기적인 추세 속에서 확인한 결과 2009년에 각 세 가지 측면은 구조적 변화 요인을 발견할 수 없었음.
- 결론적으로 대학진학률 1.9% 포인트 하락은 위의 세 가지 측면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 못함.

- 2009년에 대학진학률이 급격히 하락한 것은 다른 요인에서 설명되어야 함. 예컨대, 지역 간/대학 간 양극화 등과 같은 교육 불평등 문제나 세계경제의 동반침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이 있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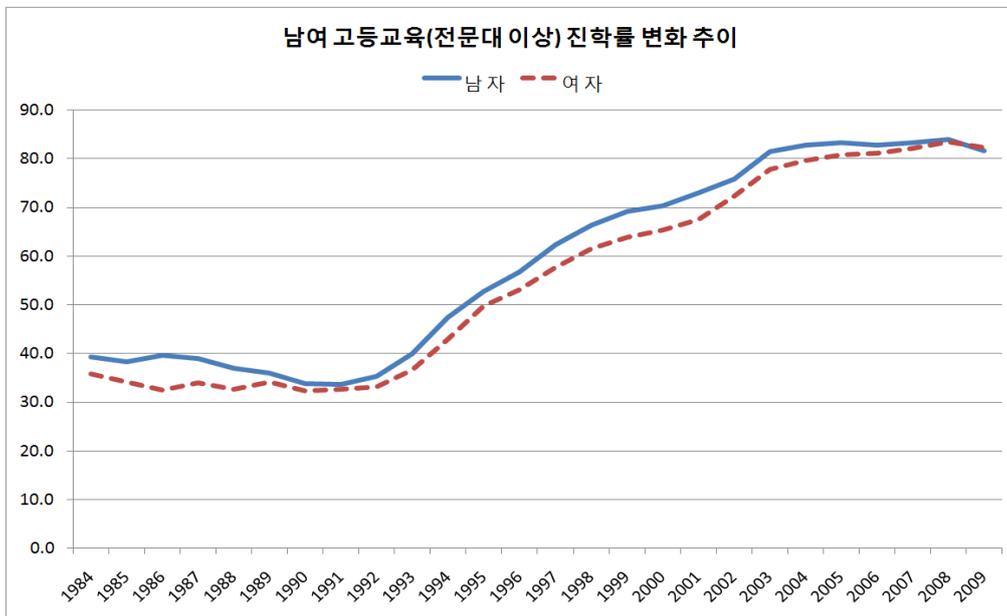
2. 대학 진학률¹⁾ 현황

■ 대학진학률 변화의 장기 추세

- [그림 1]과 같이 80년대 이후 대학진학률 추세를 보면 전기, 급증기, 포화기로 나눌 수 있음.
- 전기는 90년대 초 이전까지의 시기로, 대학진학률이 평균 30~40%로 유지되던 시기임.
- 급증기는 90년대 초에서 2003년 이전까지의 시기로, 대학진학률이 해마다 평균 4% 가까이 급상승했던 시기임.
- 포화기는 2004년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로, 대학진학률이 80% 이상의 고점을 넘어서 사실상 포화 상태로 볼 수 있는 시기임.
- 따라서 2009년의 대학진학률 변화는 포화기에 접어 든 상황임을 전제로 원인을 파악해야 함.

[그림1] 남녀 고등교육(전문대 이상) 진학률 변화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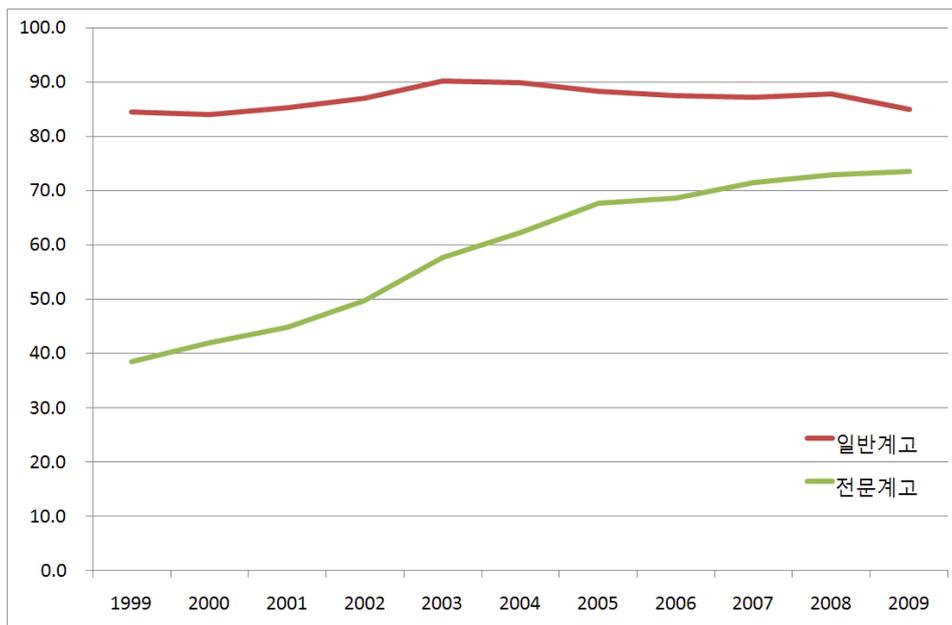


1) 대학 진학률은 고교 졸업생 중에서 고등교육에 즉시 진학한 자의 비율로 정의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함. 여기서 진학한 자의 규모와 대학 입학자의 규모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대학 입학자의 규모는 고교 졸업 후 당해연도 진학한 자에 더해 이른바 재수생과 사회인 출신의 입학자를 합친 것임. 대학 진학률을 한국교육의 고학력화 현상과 엄밀히 연관시키기 위해서는 재수생 출신의 입학자까지 포괄한 수치가 필요함.

- 2000년대 대학진학률 상승은 전문계 고등학교가 주도
- 지금까지의 진학률은 일반계고가 아닌 전문계고에 의해 끌어올려진 것임.
- [그림 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00년대 이전에 일반계 고등학교의 대학진학률은 이미 80%를 상회하여 안정되는 경향을 보임.
- 반면에 전문계 고등학교의 대학진학률이 현재까지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2003년을 기점으로 일반계의 대학진학률이 미세하게 하락 추세로 접어든 것과 대비됨.
- 앞서 2003년 이후를 대학진학률의 포화기라고 정의한 것은 2000년 이전부터 포화 상태에 들어선 일반계 고등학교의 대학진학률과 70%에 도달하면서 상승추세가 완화되기 시작한 전문계 고등학교의 대학진학률이 합쳐져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2] 일반계고와 전문계고의 대학진학률

(단위 : %)



3. 대학진학률 장기 변화의 수요 및 공급 요인

- 인력공급 측면에서 고교 졸업생 규모, 인력수요 측면에서 대학 입학 정원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함.
- 1990년대 이후 대학진학률 급증기에는 공급과 수요 양 측면의 동반 확대가 일어났음. 한편 포화기에는 공급과 수요 양 측면이 동시에 정체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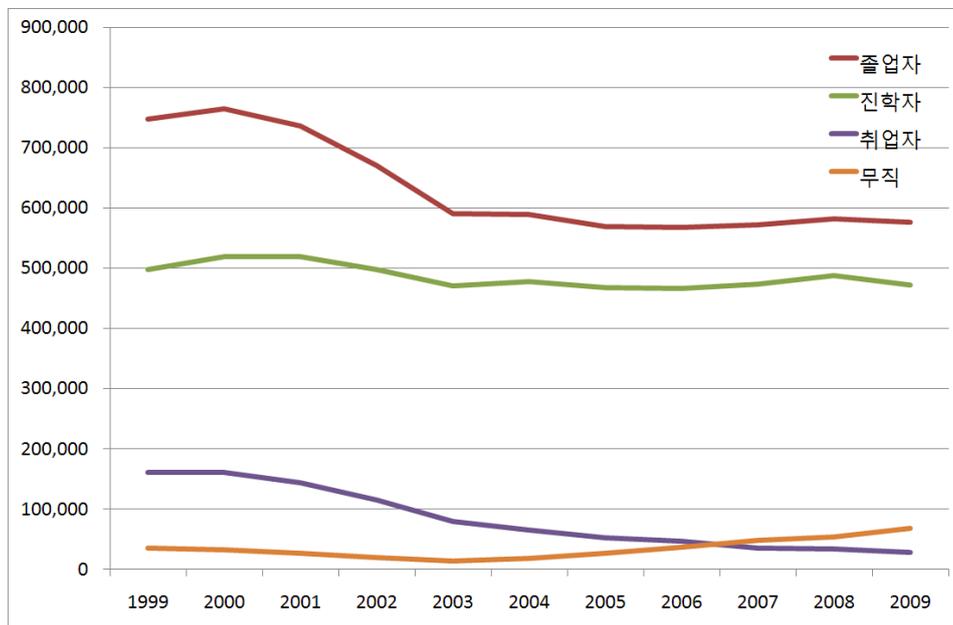
1) 공급 측 요인 : 고교 졸업생 및 진로 경로의 변화

■ 졸업 및 진학자 정체, 취업자 감소 및 무직자 증가

-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던 고교 졸업자 수는 출산률 저하로 인해 2000년 초반에 급격히 감소. 70만 명을 상회하던 고교 졸업자 수가 2000년에서 2003년 사이의 3년 동안 약 20만 명 가량 하락함.
- 그러나 이 기간에 진학자 수는 50만 명 안팎을 거의 유지함. 즉, 2003년 이전까지의 대학진학을 급상승은 졸업자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진학자 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결과로 해석됨.

[그림3] 고교졸업생의 진로 변화

(단위 : 명)



- 한편 취업과 무직으로 진로를 정한 고교 졸업생의 규모에 특징적인 점들이 발견됨. 먼저 취업자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고교 졸업 후 즉시 취업의 기회가 감소되고 있음을 의미함. 국민경제 전체의 고용창출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산업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2003년 이후 고교졸업자의 취업률이 대학졸업자의 취업률보다 낮아진 것과 관련될 것으로 보임.
- 졸업 후 무직 상태에 들어선 자의 숫자는 2003년부터 계속해서 증가함. 고교 졸업 후 무직 상태에는 재수생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도 진로 미결정, 유학 준비 및 기타가 혼재되어 있을 것임.
- 2003년 이후 재수생의 숫자가 어느 규모까지 증가했는지는 이번 글에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함. 다만 여기서 지적돼야 할 지점은 재수생을 포함해 대학진학률의 변화를 확인해야만 이른바 ‘학력인플레이’로 인한 추세 반전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임.

■ 재수생의 대학입학자 비율은 약 31%에 달함

- [표 1]은 각급 고등교육기관별 고교 졸업 후 즉시 진학자와 재수 후 진학자의 2009년도 숫자를 나타낸 것임.
- 전체 고등교육 입학자 중 재수자의 비율은 31.02%에 달함(기타 제외). 대학 신입생 약 10명 중에 세 명 꼴로 재수생임.
- 평생교육 또는 직업교육의 성격을 갖는 각종학교, 방통대, 산업대, 기술대 등을 제외하면 약 22.4% 수준임.

[표 1] 2009년 대학별 입학상황

(단위 : 명, %)

입학자	합계	고교졸업자	재수자	기타
전문대	242,525	156,762	67,683	18,080
교육대	5,234	3,233	1,885	116
대학	347,750	272,608	63,748	11,394
각종학교	166	50	78	38
방통대	34,157	1,149	29,825	3,183
산업대	19,396	14,117	4,627	652
기술대	78			78
전체	649,306	447,919	167,846	33,541
비율		68.984	3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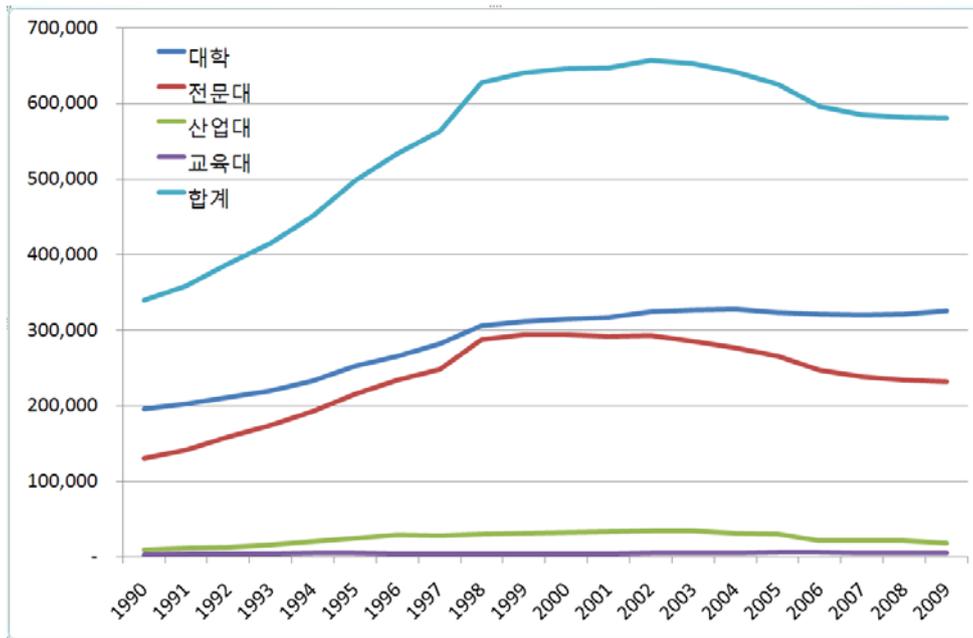
2) 수요 측 요인 : 대학 입학 정원의 변화

■ 최근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이 지속적으로 하락

- 최근 몇 년 사이 대학 구조조정과 일부 대학의 정원 감축으로 대학의 총 입학정원은 줄어들다 정체된 추세임.
- 그러나 대학별 입학정원 추이를 보면, 일반대학은 정원 늘고 전문대와 산업대는 감소하고 있음. 특히 전문대의 입학정원 감소가 두드러짐.
- 전문대는 1998년 일반대학의 총 정원에 거의 육박했으나 2009년 현재에는 일반대학의 총 정원과 약 10만 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그림 4]에 국한시킨다면 2003년 이후의 대학진학을 변화 요인은 거의 전적으로 몰락이 우려스러운 전문대의 정원 감소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1990년대 이전까지 전문계 고교가 대학진학률에서 일반계 고교와 격차를 보일 때, 전문대학은 전문계 고교의 고등교육 기회 제공의 중요 통로였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경로가 무너지고 있음을 나타냄.

[그림4] 대학별 입학정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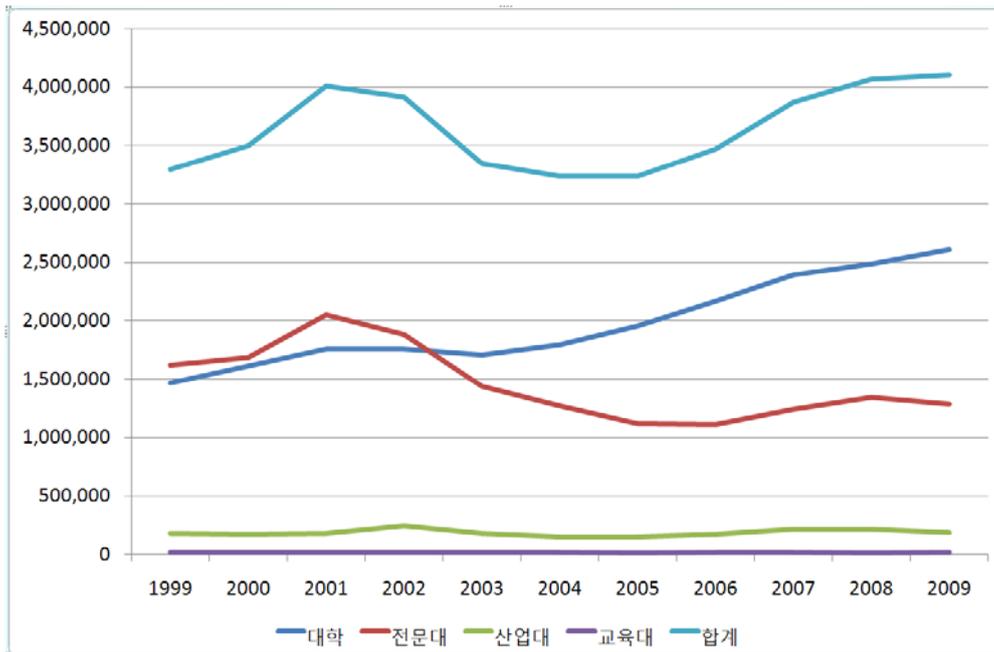
(단위 : 명)



- [그림 5]는 대학별 지원자 수 추이를 나타냄. 대학별 지원자 수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저점을 찍었다가 2005년 이후에 다시 상승하고 있음.
- 종류별로 확인해 보면, 2000년대 전 기간에 걸쳐 대학 지원자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 반면 전문대, 산업대 지원자 수는 이미 2001년부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음.
- 따라서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지원자 수의 감소는 전문대와 산업대 지원자 수의 급격한 하락에서 기인한 것임이 확인됨. 2007년과 2008년에는 전문대와 산업대 지원자 수가 조금 증가하기는 했으나 일반대학 지원자 수 변화 추세에 비해서는 미미한 효과라 할 수 있음.

[그림 5] 대학별 지원자 수 추이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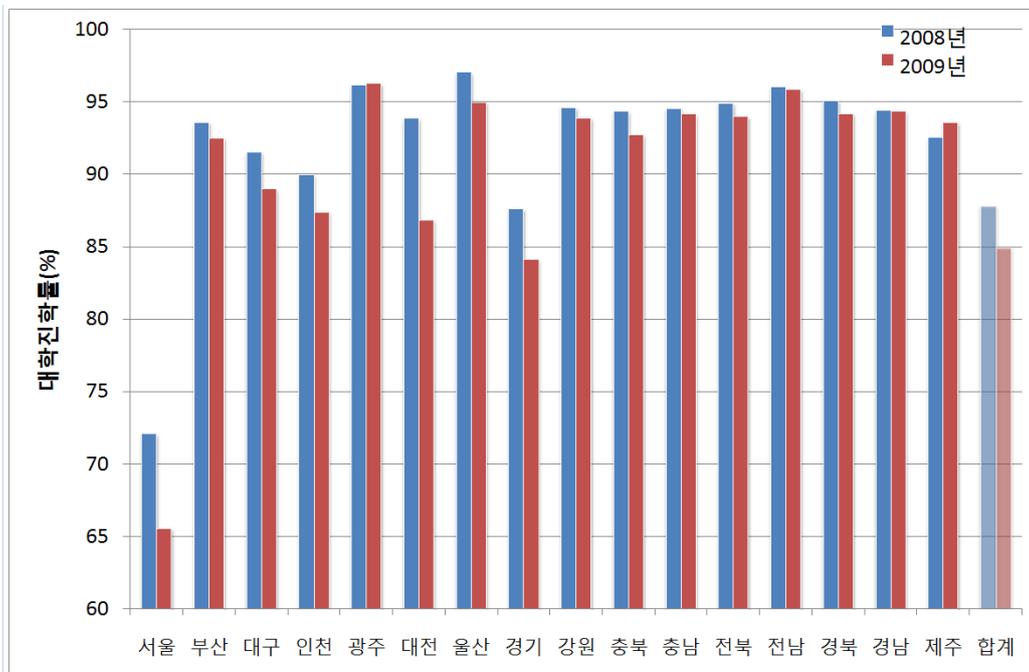
4. 결론

- 이미 80%를 돌파한 대학진학률은 2003년 이후 포화기에 접어들었음. 가구당 자녀수의 감소, 학령기 인구의 증가속도 둔화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때문에 대학진학률의 포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측될 수 있는 현상이었음.
- 특히 2003년 이후에는 이미 전문계 고등학교까지 대학진학률이 70%를 돌파해 추가적인 상승이 어렵다는 공급측 요인과 생존 조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의 정원이 감소되고 있다는 수요측 요인까지 겹쳐 대학진학률이 최고점의 수준에까지 도달했다고 할 수 있음.
- 이상의 요인들은 현재로서는 변화될 조짐이 발견되고 있지 않음.
- 현재 고등교육기관의 정원은 전체 고교 졸업생 숫자를 모두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확대되어 있음. 그렇다면 장기 변화 추세에서 중요한 것은 포괄적 지표인 대학진학률이 아니라 대학 종류별 경쟁의 정도라는 질적 지표일 수 있음.
- 예컨대, 대학진학률의 포화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대학 입시 경쟁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음. 2009년도에 대학/전문대/산업대/교육대의 네 가지 고등교육기관만 놓고 보아도 지원자 수가 졸업생 숫자 약 60만 명의 7배에 가까운 400만 명을 넘어섰음.
- 대학 입시의 경쟁률을 주도하는 곳은 전문대나 산업대가 아니라 일반 대학이며, 특히 서울 지역의 4년제 대학들임. 다시 말해서 대학진학에 있어서 대학종류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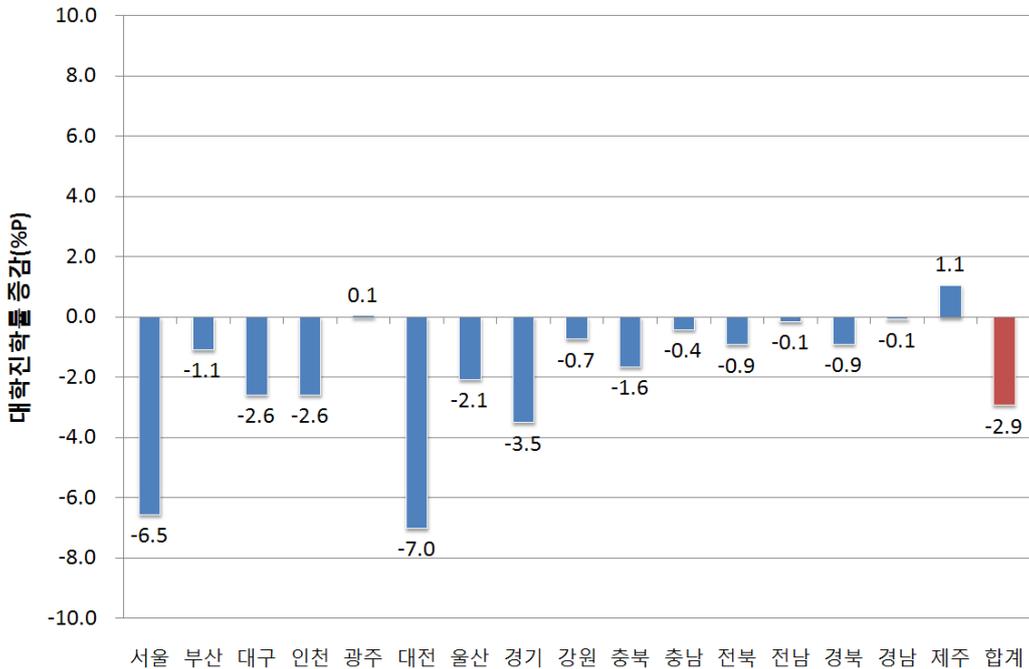
역별 양극화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임.

- [그림 6]과 [그림 7]은 2008년과 2009년의 지역별 대학 진학률 및 증감을 나타낸 것임. 2009년에 전국 대학진학률의 하락은 광주와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적 현상임을 알 수 있음.
- 2009년 대학진학률 하락이 전국적 현상임에 분명하지만, 앞서 설명해 온 대로 이는 이미 포화기에 접어든 대학진학률의 유의미한 감소로 해석될 여지는 없어 보임.
- 중요한 점은 서울과 경기, 대전 등 대도시의 진학률 하락이 매우 두드러진다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대도시 대학진학률이 더 크게 하락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경제 침체의 위기 요인이 작용했다는 가설이 가능할 것임. 즉, 대도시 지역일수록 임금노동자 비중이 높고 경기에 민감한 가구의 비중이 높아 이들 가구의 자녀들이 진학을 포기 또는 연기했을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자녀의 고등교육에 부모가 높은 열정과 지원 의사를 갖고 있는 한국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과연 경기 요인이 얼마나 대학 진학률을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 대도시 대학진학률의 상대적으로 큰 하락은 경기 요인보다는 대도시 지역의 대학진학 경쟁률 격화의 결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그림 6] 2008, 2009년 시도별 대학진학률



[그림 7] 2008, 2009년 시도별 대학진학률 증감



5. 보론 : 대학입시 정책 효과

-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가운데 하나인 대학입시의 자율화로 인해 각 대학은 수능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내신 비중을 낮춰 왔음. 이는 노무현 정부가 내신 비중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던 것과 대비됨.
- 일반적으로 수능 강화와 내신 비중의 하락은 재학생보다 재수생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최근 고교 졸업생의 진로 가운데 무직 상태의 숫자가 늘고 있어 재수생의 숫자가 확대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입시 정책이 재수생의 강세를 유도하고 이로 인해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하락했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지나치게 단편적인 추정이라 할 것임. 첫째, 내신 비중이 하락했다고 해도 내신 중요도가 하락했다는 판단 근거는 없음. 오히려 내신 점수의 변별력을 높여 실질적으로는 중요도가 상승했을 수 있음. 최근 유명 사립대학들의 주도로 ‘사실상의 고교등급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선발 방식의 변화는 실질적으로는 재학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임. 둘째, 위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재수생을 제외시킨 대학진학률 만으로는 유의미한 ‘사회적 의미’가 없다 할 것임. 대학진학률 변화는 한국사회의 학력 간 차별, 이로 인한 입시 경쟁의 격화 현상과의 관련성 속에서만 의미를 가짐. 예컨대, 고교 졸

업생의 즉시 진학자 비중-즉, 대학진학률-이 하락하는 대신 더 많은 재수생이 대학에 진학했다면 이는 진학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학력인플레 현상’은 완화된 것이 아니라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재수생을 포함한 대학진학률의 추이에 따른 분석이 필요함.

